

시나리오

제목	드론과 시로 더 안전해진 삶
내용	
<p>S#1. 골목길(밤/밖)</p> <p>2050년, 인공구 지능동에 살고 있는 대학생 윤서.</p> <p>늦게까지 과제를 마치고 자취 건물로 돌아가는 길. 으스스한 골목길을 지나야 하는 상황이다.</p> <p>윤서는 얼마 전에 본 연쇄살인 뉴스나 지능동에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났다는 뉴스 기사를 떠올리고 불안에 떨며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p> <p>윤서는 경찰청에서 만든 지킴이 드론(지드론) 서비스를 떠올리고 챗봇으로 서비스 신청을 한다.</p> <p>윤서: 귀갓길 지킴이 신청할게요.</p> <p>지드론: (채팅으로)안녕하세요? 경찰과 함께 지킴이 드론, 지드론입니다! 지드론 이용을 위해 위치 정보 액세스 권한을 허용하시겠습니까? (y/n)</p> <p>권한 허용을 하고 얼마 안 지나 윤서의 머리 위로 지능동을 순찰하던 드론이 날아온다. 윤서는 드론이 도착했다는 알람을 보고 드론을 쳐다본다.</p> <p>윤서: (속으로) 드론이 조용해서 온 지도 몰랐어. 시끄럽지 않아서 밤에 이용해도 문제없을 것 같아서 좋다.</p> <p>귀가하는 윤서 뒤로 수상한 사람이 따라붙는다. 수상한 사람은 품에 숨겼던 흉기를 들고 윤서를 위협한다.</p> <p>윤서: (겁먹은 표정으로) 도와주세요....</p> <p>지드론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흉기를 인식하고 인공구 경찰서에 상황을 전달한다.</p> <p>S#2. 인공구 경찰서/골목길 교차(밤)</p> <p>[인공구 경찰서]</p> <p>지드론이 전달한 상황을 받은 경찰 민석.</p> <p>민석: 인공구 지능동 127-1 옆 골목길에서 위험 신호 감지했습니다. 해당 지드론 조종 시작합니다.</p> <p>민석은 윤서가 이용 중인 지드론을 조종하기 시작한다. 지드론은 사람 눈높이 정도로 내려간다. 지드론의 스피커를 통해 민석은 말한다.</p> <p>[골목길]</p> <p>지드론(민석): (강조된 음성으로)경찰입니다! 흉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p> <p>수상한 사람: (흉기를 윤서에게 찌를듯 손을 든다)</p> <p>민석은 판단에 따라 드론에 달린 소형 마취총을 발사하여 수상한 사람의 위협을 잠재운다. 드론에게 위험 신호를 전달하자마자 해당 위치로 출발한 경찰들이 마취총을 맞고 쓰러진</p>	

수상한 사람을 체포한다. 윤서는 드론과 함께 안전하게 귀가한다.

S#3. 경찰서 사무실 (낮/안)

다음 날, 출근한 민석은 살인사건 신고 전화를 받는다.

신고자: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만 들린다. 긴장한 목소리로) 여기 친구들이 피흘리고 있어요.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굴러다니고 있어요.

민석: (주변 형사들에게 출동 신호를 보내며) 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주소가 어디죠?

전화를 끊자마자 민석이 속한 형사와 팀원들이 출동을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민석은 프로파일링 AI를 챙기고 출동 차량에 올라탄다. 사이렌이 울리고 차가 출발한다.

S#4. 살인사건 현장: 피해자 A의 방 (낮/안)

폴리스 라인으로 접근을 제한한 현장 안으로 민석이 피해자 A씨의 시체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병원에 입원 후 몇 시간 뒤 사망했다. 현장은 피와 피 묻은 양말 자국으로 가득하다. 형사들이 현장을 AI가 탑재된 카메라로 찍는다. AI 카메라는 혈흔을 찍으면 혈흔의 각도, 흥기가 날카로운지, 뭉툭한 건지 유추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AI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은 프로파일링 AI로 공유되어 정보를 축적한다. 프로파일링 AI는 혈흔의 모양, 발자국, 시체에 남은 자국 등을 종합해 범인의 행동적 특성을 분석한다. 민석은 신고자 C에게 사건 정황을 물어본다. 동시에 C에게 프로파일링 AI와 연결된 뇌파 측정 패치를 붙인다.

민석: (프로파일링 AI의 영상 기록 기능을 키며) 사건을 목격한 당시 상황을 말해주세요.

C: (떨리는 목소리로) A와 B, 그리고 저는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최근에 A랑 B가 말다툼으로 다투긴 했는데 제가 둘을 화해 시키려고 셋이서 술 한 잔 하자고 했어요. (눈을 굴리며 말한다) 안주가 부족해졌기도 하고 둘이 얘기 좀 하라고 잠시 나가겠다 하고 비켜주었죠. 몇 시간이더라... 3시간 뒤에 들어갔더니 둘 다 피 흘리며 쓰러져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신고한 거고요.

민석: (진정시키듯이) 네, 알겠습니다. 잠시 앉아서 쉬고 계세요.

민석은 기록내용을 본다.

민석: (턱을 만지며)이 상황에선 C가 가장 의심스러워.

AI: (신고 당시 민석에게 걸려온 통화 내용 녹음본을 재생하며) 네, C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C는 '무섭다, 겁이 난다' 등의 정서 표현이 생략된 것과 B가 범인이라는 식의 결론적인 것들만 신고하고 진술했기 때문에 의심스럽습니다.

AI는 수년간 경찰들이 입력한 범인들의 심리, 살해 동기, 살인 방법 등을 참고하여 모든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한 시뮬레이션을 형사들에게 보여준다. 형사들은 그 케이스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AI: (C의 진술 중 '잠시 나가겠다'는 진술에 하이라이트를 치며) 이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C가 현장에 들어가는 때에 주변을 순찰하던 지드론의 cctv를 조회한 결과, C는 브랜드 로고가 있는 흰 발목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C는 양말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민석: (주변 형사에게 말하며) 현장에서 양말이 발견 됐나요?

형사: 발견된 건 없습니다.

AI는 C의 진술 당시 시뮬레이션을 3D장면으로 구현하며 C의 시선 처리와 현장 구조의 관계, 표정 변화, 뇌파의 변화를 분석한다.

AI: C는 의식적으로 화분 쪽을 보려 하지 않았고, 형사가 화분을 조사할 때 눈에 띄는 뇌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형사는 화분의 흙 들어내고 피문은 C의 양말을 찾는다. 양말에선 A와 B의 혈액이 모두 발견된다.

AI: A와 B가 싸우다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한 C의 진술과 다르게 각자의 신체에선 서로의 혈액이 섞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둘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C의 족적에선 A와 B의 혈액이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자국의 주인공인 C가 A, B를 모두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C는 체포되고 얼마 후 열린 재판에서 프로파일링 AI가 도출한 증거들이 증거로 채택 되어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받는다.

S#5. 하늘(낮/밖)

화창한 하늘에 지드론이 날아다닌다.

지드론: (활기찬 음성으로) 안녕하세요? 경찰과 함께 지킴이 드론, 지드론입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지드론이 날아가며 점점 작아진다.